



보도시점

2024. 4. 3.(수) 06:00  
4. 3.(수) 석간

배포

2024. 4. 2.(화) 16:00

## 농식품부, 민·관 합동으로 2024년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9일(금)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을 선정하였다.

### < 2024년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4. 3. 29.(금) 14:00~16:00, 농식품부 회의실
- 위원회 구성 : 수출업계, 생산자단체 등 외부위원(19명)과 농식품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 소속 정부위원(7명) 등 26명
- 안건 : 2024년도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안)

농식품부는 작년 말부터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수출 희망 품목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를 통하여 그 품목들에 대한 해외 시장성을 분석하고, 국내의 생산 및 방역 여건 등을 검토하여, 중점 추진품목 선정(안)으로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개최된 위원회에서 3단계 절차를 거쳐 마련된 중점추진품목 선정(안)을 심의하여 농산물은 9품목(對 6개국), 축산물은 7품목(對 8개국)을 확정하였다.

농산물에서는 해외에서 품질이 우위에 있는 복숭아(중국), 포도(필리핀), 참외(베트남), 온주밀감(베트남)이 선정되어 향후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또한, 고구마(미국)는 현지에서 다양한 식재료로 수요가 많고 한국산의 품질이 우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그리고 이미 수출이 가능하지만 사과·배(대만)와 샤인머스켓(호주)의 수출량을 확대하기 위해 검역요건 완화 협상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에서는 한우고기 수출시장을 싱가포르·유럽연합(EU)·인도네시아로 확대할 계획이며, 가축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수출중단의 영향이 적고 해외

에서 수요가 많은 열처리돼지고기 및 유제품은 싱가포르·미국과 인도네시아를 각각 중점 개척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에서 꾸준히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사료는 수요가 많은 중국과의 검역협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리고,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필요한 신선가금육은 신규시장(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을 중점 개척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재외공관 등과 금년도 중점추진품목을 공유하고, 국가별 해당 품목에 대한 검역협상 추진 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연중 추진상황을 자체 모니터링하며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중국, EU, 미국, 싱가포르 등 기존 수출시장에 대해서는 유망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출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수출검역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 추진품목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경희	(044-201-2071)
		농산물 담당자	사무관 박수현	(044-201-2074)
		축산물 담당자	사무관 김기형	(044-201-2072)



□ (농산물) 9품목 6개국 9건, (축산물) 7품목 8개국 11건

구분	대상 품목	대상 국가
<b>농산물</b>  9품목 6개국 9건	고구마	미국
	단감	중국
	복숭아	중국
	참외	베트남
	온주밀감	베트남
	포도	필리핀
	사과	대만
	배	대만
	샤인머스켓	호주
<b>축산물</b>  7품목 8개국 11건	쇠고기	인도네시아
	쇠고기	싱가포르
	쇠고기	EU
	돼지부산물	태국
	열처리가금육	베트남
	열처리돼지고기	싱가포르
	열처리돼지고기	미국
	신선가금육	인도네시아
	신선가금육	말레이시아
	유제품	인도네시아
	반려동물사료	중국